

석사 학위 논문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노인 무력감
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지도교수 허 철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방 경 자

2005년 8월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노인 무력감 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방 경 자

방경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노인 무력감 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방 경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완화를 위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둘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셋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 연구에 적용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 자료들을 수집하여 종합, 분석을 통해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일정을 소개, 자기 소개, 서약서 작성 등의 시간을 가졌다. 2회기는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동화와 동일한 경험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회기는 '나의 인생 곡선'이라는 제목으로 2회기의 심화 활동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회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동화 속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자녀에게 이야기 해보고 난 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구두로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 5회는 '노인으로 잘 사는 것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동화를 듣고 미완성 문장을 완성해 보는 활동, 동화 속 주인공의 마음을 유추하는 활동을 통해 노인으로써의 자신의 삶을 정돈해 보도록 하였다. 6회는 '나에게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전래 동화의 일부 이야기를 듣고 생략된 중간 부분을 유추하고 등장 인물과 같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황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7회기는 '나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과를 함께 나누며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 북제주군에 소재한 s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검사를 실시하여 무력감이 낮은 노인, 입소한지 6개월 이상 된 노인, 집단 활동의 참여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연구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참여를 수락한 노인 20명을 임의 표집하여 각각 10명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정하였다.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의 실시는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시행되었으며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매회 60분간 총 7회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회기는 오후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다과회를 겸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으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력감 측정도구에 통해 사전- 사후 검사한 결과를 통계 분석한 양적 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질적 자료 분석 평가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무력감 검사도구는 Miller(1983)가 개발하고 박정문(2001)이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둘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하위 요인인 정서적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셋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넷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하위 요인인 학습참여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다섯째, 노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세대로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인생을 정리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노인들의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노인의 이러한 특성을 살펴 긍정적 자기 이미지, 생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개인차가 크고 태도가 다양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진행 방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노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노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는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섯째,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완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성과로는 문헌 고찰과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본 경험에 비추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 전래동화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곱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원들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진행자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대화를 보다 체계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화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세우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무력감을 완화할 수 있는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현장에 적용될 때 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을 사전에 예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무력감 완화를 위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과 본 연구에서 구성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이 후속의 시설 거주 노인 전문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데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6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6
2.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심리	12
3. 노화와 무력감.....	14
4. 전래동화의 본질과 특성	17
III. 제주 전래동화 활용프로그램의 개발.....	22
1.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과 구성	22
2. 프로그램 진행의 실제.....	27
IV.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31
1. 연구 대상.....	31
2. 연구 설계.....	31
3. 측정도구와 자료처리	32
4. 연구 결과 및 해석	33
V. 요약, 결론 및 제언.....	46
1. 요약	46
2. 결론	49
3. 제언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6
부 록.....	59

표 목 차

<표 III- 1>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26
<표 IV- 1> 연구 설계.....	31
<표 IV- 2> 무력감 척도의 구성	32
<표 IV- 3> 평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
<표 IV- 4> 무력감 사전 검사 비교.....	35
<표 IV- 5>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35
<표 IV- 6> 정서적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37
<표 IV- 7> 건강활동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38
<표 IV- 8> 일상생활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38
<표 IV- 9> 학습참여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39
<표 IV-10>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무력감 사후 검사 비교.....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간 생애에 있어 노인으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노년기의 연장이 이렇듯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요, 개인에게는 절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늙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다만, 노인의 삶을 통하여 노년기에 체험하게 될 신체적 쇠퇴와 그로 인한 심리적 악영향, 즉 무력감과 우울, 절망 등과 함께 내 자신의 다가올 노년을 인식할 뿐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수발 문제,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심리사회적 고통이 노인에 대한 주된 인식이다.

이처럼 노화로 야기되는 신체적, 심리적 능력 상실은 현대인에게 불쾌하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삶이 점차 길어지면서 연장된 노년기는 성장과 변화에 집착하여 개인적인 발전과 성취는 높게 평가해온 반면 노화에 대한 가치는 소홀히 평가해온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였다. 특히 돌봐줄 자녀나 친인척이 없고 본인의 생계능력이 없는 이른바 “무연고 극빈 노인”인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경우, 단순한 요보호 대상으로만 치부되면서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만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 간주하고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간과하고 있다.

복지시설 거주 노인은 일반 재가 노인과 비교해 노년기 삶에 대해 좀더 개방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어떠한 노년기 삶이 훌륭하고 좋은지, 어떻게 노년에 적응하는 것인지, 노년에 대한 가치와 규범을 탐색할 기회가 거의 주어져 있지 못하다. 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운영주체인 기관의 필요와 그때그

때의 유행에 따라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인들의 표현적 학습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 여가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노인들이 지나온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노년의 삶에 적응하고 인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복지 시설의 거주 노인들은 시설 거주라는 독특한 생활조건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주거시설들은 단체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규율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흔히 노인들의 자유나 창의성은 무시되기 쉬우며,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생활이 제한되거나 정서적 욕구 발산의 기회가 차단 받으면서(장숙아, 1997) Goldfarb(1945)와 Bowlby(1969)가 언급한 것처럼 겉으로는 규칙에 순종하지만 안으로는 반항적인 마음을 갖는 등 이중적인 성격유형을 보이게 된다(김미애, 1994, 재인용).

또한 노인과 노인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여러 면에서 노인의 안녕감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단의 연구들은 거주 노인의 무력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은 Shaw(1986)의 연구가 노인의 85%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것처럼 매우 보편화된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가노인, 입원노인, 노인대학 출석노인, 양로원 입소노인의 무력감을 비교 연구한 우리나라의 연구도 양로원 입소노인이 가장 높은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조자 외, 1992).

무력감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미래에 대한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떤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생기는 허탈하고 맥빠진 듯한 느낌으로서, 이러한 무력감이 반복되면 성취욕구가 저하되고, 어떤 행동적 반응을 해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예상하게 되는 동기적 손상, 생동적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인지적 손상,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손상이 생기게 된다(김영희, 1993). 특히 노인의 경우는 무

력감이 완화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울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죽음을 재촉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김경은, 1995; 정승은, 1997). 그러므로 시설 거주 노인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려면 무력감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무력감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노인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을 인출해내고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Schaie & Parr, 1981). 노인들의 경우는 광범위한 연령과 경험의 폭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다양한 집단이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식이나 정보의 주입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매개체로서 전래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노인의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노인의 경직성과 보수성 등의 성격적 특성,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 경향을 고려하고 무력감을 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래동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 구전형식으로 전해 내려왔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덧붙여짐에도 불구하고 전래동화의 기본 모티브는 그대로 간직되면서 계속 전달되고 있다. 전래동화가 이같이 생명력을 지니고 오랫동안 전달될 수 있는 까닭은 전래동화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 하듯이 단순히 흥미위주의 허구적인 재미있는 이야기거나 교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래동화의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인식에서 비롯된 이야기들, 곧 우리 삶의 본질을 밝히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있어야 할 세계 그리고 있다고 믿는 세계에 대한 묘사로서의 동화에는 단지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상의 많은 것들 - 인간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관계, 인간의 삶의 문제, 인간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이 들어있다.

Kast(1990)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시절에 읽은 동화가 성인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미환, 1997). 이는 동화의 내용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간상들이 우리 삶의 전체적인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대상과 무력감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전래동화는 적합한 매개체이며 전래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노인들이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고찰하고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흔히 간과되기 쉬운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무력감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이들의 무력감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현실 적용 가능한 제주 전래동화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무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둘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셋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이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무력감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정서적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 건강활동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 일상생활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 학습참여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무력감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므로 노인과 무력감, 제주 전래동화에 초점을 둔다. 먼저 노년기에 적합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인의 정의와 특성,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심리, 노화와 무력감을 살펴보고 이것을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주 전래동화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인생에 있어서 늙기 시작하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노화란 점진적인 것이고 때로는 거의 인지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명확히 규정된 때가 없기 때문에 노인의 범주에 들어서는 때를 결정하는 데 각 사회는 다양한 기준을 사용한다. 이혜원(1998)은 노인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였다. 윤진(1985)은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노화과정에 있는 남녀’ 로 정의하였다. 1951년 제 2 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노화(aging)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연령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60세를 회갑년으로 하는 전통이 있으나 생활보호법(1961)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노인 복지법(1993)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노년의 시작을 사회적으로 역할 전환의 측면에

서 본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의 마라코파 인디언들은 첫손주가 태어날 때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노인을 연대기적으로, 즉 사람이 몇 년간 살았는가에 의해 정의한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대체로 정년퇴직 시기를 기점으로 규정하며 보통 60세 전후로 시작되고 있어 구미 산업국가에 비하면 사회학적 의미의 노년기가 좀더 일찍 시작되는 셈이다(진영아, 1994).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노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 즉, 신체적인 쇠퇴, 허약, 무기력, 생리적 기능의 쇠퇴 등을 가리켜 노화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육체적 쇠퇴는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양하며 한 사람의 신체 내부나 기능에서도 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육체적 쇠퇴 현상은 머리가 빠지고 하얗게 되며 청각 시각이 감퇴되고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며 탄력이 없어지고 심장박동이 약해지며 폐활량이 적어지게 된다. 또한 근육의 힘이 감소되며 신장의 여과기능이 약화되고 뼈조직이 약해지며 여러 신체 조직이 허술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노화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신체적인 노화현상 중에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도 있고, 신체 내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노화도 있다.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의 특징은 내분비 기능의 저하와 동맥경화성 순환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기초 대사량의 감소, 시력 및 청력의 감퇴, 기온변화에 대한 감수성 증가, 모발의 손실 및 탄백화, 치아소실, 소아기능의 변화, 결체조직의 탄력성 감소 등이다(신종태, 2000). 신경계통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며, 기능적인 변화로서 불면증과 소화기능의 쇠퇴를 가져오며, 피로를 느끼며, 혈액순환이 느리고 불규칙하며, 또한 호흡작용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유기체의 생리적인 적응력이 감소되어 체온통제나 피로회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변화는 고령화 될수록 고혈압, 뇌혈관 질환, 순환기 질환, 암, 당뇨병, 폐결핵, 치아질환, 시력, 청력장애 등 노인

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된다.(김명선, 2000).

노년기에는 수면에도 변화가 온다. Hayachi와 Ende(1982)는 노인의 전체 수면시간은 줄어들며 자주 잠에서 깨어나 하룻밤에 평균 20번 정도 잠에서 깨어나며 밤 시간의 20% 정도는 깨어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상훈, 2001, 재인용). 또한 감각기능의 손상 또한 현저하다. 물체에 대한 시각적 예민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시야가 흐려지게 된다. 색깔 변별 능력도 낮아지는데 초록과 파란색 계통의 변별력 손상이 먼저 오며 빨간색은 가장 늦게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각 능력의 변화는 시지각 감퇴를 유발한다(박선희, 1997).

노인의 신체 기능의 쇠퇴는 외계에 대한 반응의 둔화,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이상 상태에서부터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의 둔화, 손상을 받았을 경우 회복하는 능력의 감퇴를 동반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신체는 예비력이 떨어지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태현, 1994).

신체적 노화는 노인의 다소 부정적인 심리적인 특성에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오해, 의심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노인들의 성격이나 행동에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이 증가하는 변화를 초래한다(고민호, 1999). 즉 노인들은 매사에 행동을 느리고 조심스럽게 하며,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직성을 보인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 되어간다. 흔히 노인들의 행동이 느리고 융통성이 없고 답답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사미자, 1995). 신체적 노화는 불안, 욕구불만 및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반응을 가져오며 이 같은 반응을 타인으로 하여금 빈번하게 강화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키게 되며, 노인의 행동과 적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미실, 1996). 귀가 안 들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눈이 어두워 보고 읽는 문제가 쉽지 않아짐으로 자연히 소외 의식

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긍지를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생의 의미를 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노인에게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진다(고민호, 1999).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 기능이 쇠퇴한다는 일반 인식과는 달리,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빈틈이 없고 명석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적이다(김명선, 2000). 또한 지능 감퇴가 연령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장년기 또는 노년기 초기에는 별다른 쇠퇴가 일어나지 않으며 지능에 있어서 연령은 16~25%만이 설명력을 갖고, 나머지 75~84%는 연령 이외의 동시집단, 교육수준, 생활의 경험, 불안수준과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수준, 동기 등의 여러 요인들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능의 변화는 노화에 따라 일률적으로 쇠퇴한다고 말하기 힘들며, 노인의 교육수준, 세대간의 차이, 사회 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김태현, 1994).

노인의 성격적 특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 개인의 성격이 안정되게 유지되는가 혹은 변화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맞서 있는데, 인간의 성격이 일생을 통하여 비교적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된다는 입장과 계속적으로 변화해 간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한 개인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험과 환경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과 강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주로 인지양식과 자아개념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노화에 따른 중요한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윤진, 1985).

첫째, 시간전망의 변화이다. 장년기에 이르면서 일생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다. 즉,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마지막 시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므로, 앞으로 몇 년 남았는가로 시간전망이 변화하게 된다.

둘째,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고, 건강에 매우 조심스럽게 되며, 심한 경우에

는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셋째, 우울경향이 증가한다.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우울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우울경향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자녀의 출가 혹은 독립, 신체적 질병, 경제사정의 악화, 생활에 있어서의 통제력의 악화 등이 우울경향을 증가시킨다.

넷째,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활동방향이 점차 내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부세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된다.

다섯째, 경직성과 보수성의 증가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꺼리게 되고 종전의 것들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노인들의 이러한 경향은 지각능력의 쇠퇴로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조심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조심성의 증가이다. 노화에 따른 조심성 증가경향을 설명하는 데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우선 첫째는 동기가설로서, 노인 스스로의 의지로서 정확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결과가설로서 감각능력과 인지능력 등 신체적·심리적 메커니즘의 쇠퇴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확신수준의 가설은 결정에 대한 자신감의 감퇴로 결정에 필요한 확실성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노인들은 동기적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의 욕구특성을 갖는다 (Butler, 1976; Deci, 1976; Lancaster, 1981).

첫째, 유산을 남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 일이나 예술, 재산, 추억, 심지어 자신의 신체나 장기 등을 통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흔적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한다. 이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관대하게 주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며, 비록 자신은 죽은 후에도 어떤

식으로도 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죽지 전에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싶어 하는 소망에서 발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장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다. 즉, 자신이 그 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원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욕구는 상담이나 안내, 지원 등을 통하여 발현되며, 노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젊은이들에게는 흔히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로 오해되기 쉽다.

셋째,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경향이다. 노인들에게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물건들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그런 대상들이 계속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억을 도와주고, 편안함과 안전감 그리고 만족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넷째, 시간 의미의 변화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시간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 중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보다는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햇수에 관심을 갖지만, 더 노화가 진전되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 그 순간의 생활에 더욱 큰 중요성을 두게 된다. 이러한 소위 ‘현재성’ 과 ‘요소성’ 의 경향은 사물이나 생활의 개별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자녀들이나 친구관계 및 인간관계에서도 신체적 · 정서적 접촉이나, 생김새 등에 따라 중요성을 평가, 분류하게 한다.

다섯째, 인생전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미 부여를 하려는 경향이다. 따라서 철학, 종교,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가하고 인생을 자신의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하려 한다.

여섯째, 호기심과 놀라움이 증가한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통념도 이러한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인생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의미에서 이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자신이 최선을 다 했다는 느낌,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성취감,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자위 등에서 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며 노인의 본질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가정사정의 양상 등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현재 노인의 특권 및 미래에 대한 기대들을 관련시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마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배경과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개념규정은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또한 노인의 불가피한 신체적 노화현상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가져오게 되며 늙음에 대한 올바른 자아 인식의 부족으로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지 못 하게 된다. 노인의 고집성과 거부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타협과 수용을 어렵게 하고 사회참여와 이익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불이익과 소외당하게 한다. 이는 노인의 연장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의 충족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조망하며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노인들 스스로 노년에 대한 낮은 가치감을 형성하게 한다.

2.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심리

복지시설 거주 노인은 양로시설이나 노인촌락 등 일반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주거와 숙식을 유지하며 체류하는 노인을 지칭한다. 노인은 친지, 동료들과의 원만한 상호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서병숙, 1993) 양로 시설의 노인들은 그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고립되어 생활해 온 경우가 많다. Campbell(1976)에 의하면, 노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욕구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연장자로서의 지위 유지, 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의 정서적인 접촉과 적절한 여가생활의 추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될 때 삶의 질과 만족도가 저하됨은 물론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절하, 건강관리의 소홀로 인해 생존 그

자체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였다(이인수 외, 1999, 재인용).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중 95% 이상이 무료 혹은 실비시설에 거주하는데 이들의 입소자격은 보건복지법에 명시된 대로 돌봐줄 자녀나 친인척이 없고 본인의 생계능력이 없는 이른바 무연고 극빈 노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서울지역의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설 거주노인의 28%가 정신장애나 지체불구, 혹은 시청각장애로 인한 거동불능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노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거동불능의 비율을 보였다(김정순, 1995).

일반노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회경제수준과 건강상태에서 비롯된 양로시설 거주노인의 우울증상은 일반노인의 우울증상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노인들에게 생기는 우울은 가족과의 갈등, 사업의 실패, 조기 퇴직 등 특정 인물과의 갈등이나 사건발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우울과 더불어 그 원인적 사상에 대한 집착과 증오심을 동반한다(윤진, 1985). 그리고 그 원인에 연루된 사건을 해결하거나 원인 제공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반면에 양로시설 노인의 우울증은 원인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의 고립과 허무감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정되는 특성을 지녔다(홍정실, 1995).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와 편집이 없는 반면, 가족이나 친척 등 일차보호자가 없으므로 외향적인 해결의 노력(예:대화, 상담)이 없고 자학의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신효식, 1993; 신미화 1996). 이러한 특유한 형태의 우울증상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수동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상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능, 언어, 신진대사, 수면, 식욕 등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신체기능의 장애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양로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생겨나는 복합적 우울증후군이라고도 표현된다(김현태, 1984; 김승혜 1992 이기순, 1994).

시설 거주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능력 상실 이외에도 시설 거주라는 독특한 생활조건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이는 노년에 있어 생을 회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바로 지금, 여기, 그 순간의 삶에 더욱 큰 중요성을 두는 노인의 심리적 성향을 볼 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고 핵심 사건이나 인물이 없이 오랜 시간 고립과 허무감을 경험하는 시설 거주 노인 대부분은 고독과 무력감, 열악한 경제 및 보건 상태를 가진 극도의 취약한 노인집단임이 자명하다.

3. 노화와 무력감

노인은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해 이전에 강조되었던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 또는 진부한 인식을 갖게 하며, 이에 따라 노인을 더욱 노쇠하고, 아량이 없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즉 노인은 아름답지 않고 건강관리 능력이 결핍되고,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자신을 파괴하는 존재로 낙인찍고 결국 많은 노인들은 사회의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내면화함으로써 더 이상 중요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며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Atchley, 1981). 또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통제감을 침범당하게 되는데 특히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이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스트레스는 노인을 무력감에 취약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통제가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타인에게 복종하거나 의존적이거나 타인에 의해 통제당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Erlen & Frost, 1991). 또한 무력감은 현재 자신이나 그 환경 또는 곧 직면할 상황에 대해 자신이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감

지하는 상태(Kim, McFarland & Mclane, 1989)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원에 의해 도전받는다. 이 중 신체적 스트레스원에는 다발성의 구조적, 기능적 상실에 적응하는 것이 포함되며, 노화의 생리적 변화는 노인이 무력감을 지각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Reed, 1993). 만성질환은 어느 경우에서도 무력감의 관련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무력감은 질병자체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그 질병과 관련하여 개인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구속당하게 될 때 발생한다. 또한 무력감은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격리, 경제적 부담 등의 상황과 노년기의 감각, 운동능력, 경제력 및 배우자 상실 등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을 인지 할 때 발생한다(신재신, 1992).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현상을 밝혀낸 김경은(1995)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무력감을 ‘밀려남’, ‘받아들여지지 않음’, ‘덧없음’, ‘의지할 데가 없음’, ‘기력이 다해감’, ‘단절됨’, ‘뒤쳐짐’, ‘쓸모없음’으로 체험하였다. ‘밀려남’은 노인이 자식이나 며느리, 손자 등의 가족과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타인관계를 상실함으로 체험하는 것이었으며, 노인이 되면서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밀려남으로 체험하였다.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노인이 타인에게 특히 자식, 며느리, 손자 등의 가족과 사회 속에서 위엄 등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체험하였다. ‘덧없음’은 노인에게 있어서 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지나온 시간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와 살아온 인생이 의미 없고 허망하다고 느낄 때 덧없음으로 체험하였다. ‘의지할 데가 없음’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우자, 자식, 친척 등의 지지체를 상실함으로 체험하였다.

‘기력이 다해감’은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인 약화로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느끼며 스스로 기력이 점차 없어지는 것으로 체험하였다. ‘단절됨’은 지금까지 해 온 일들과 역할의 상실, 경제적 능력의 상실 및 신체적 힘의 상실로 인해 친척 및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느끼며 외부로부터 단절됨으로 체험하였다. ‘뒤쳐

짐'은 젊은 사람들과 비해서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뒤쳐짐으로 체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쓸모없음'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서 쓸모없음으로 체험하였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현상을 밝혀낸 최영희와 김경은(1994)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 무력감을 '쇠약함', '의존함', '좌절함', '무가치함', '포기함'으로 경험하였다. '쇠약함'은 노화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쇠약함을 경험하였다. '의존함'은 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그들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병원 상황에서 약물이나 보조기구, 의사 치료 지시 등을 전적으로 따르고 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주위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존감을 경험하였다. '좌절함'은 예전의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할 일이 없다고 느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좌절감을 느꼈다. '무가치함'은 노인이 도면서 이전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자식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때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무가치함을 경험하였다. '포기함'은 노인의 경우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치유될 희망을 상실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며 포기함을 경험하였다.

두 연구를 비교해 보면 일반 노인의 쓸모없음은 병원 입원 노인의 무가치함과 의미가 상통하며 일반 노인과 병원 입원 노인의 무력감 모두가 사회적 역할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노인의 무력감이란 정상적인 노화과정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힘의 상실을 지각할 때 체험하게 되며,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경제력 및 배우자 상실 등으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인지하는 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지만,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들이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노인들에게 무력감을 해결할 수 없게 함은 물론, 노인들의 무력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역할, 지위의 상실,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 친구의 상실 등에 의해 소외감이 높은 시설 거주 노인이 무력감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제주 전래동화의 특성

1) 전래 동화의 개념과 특성

한자어인 동화(動畵)는 아이라는 뜻의 동(童)과 이야기라는 뜻의 화(話)가 결합된 말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고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전래동화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를 옛날이야기라고도 한다. 옛날이야기를 설화에 속한 것으로 보며 설화는 다시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되고 있으나(장덕순, 1970), 전래동화에는 민담과 신화, 전설이 모두 있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정도 발견된다(최운식 외, 1988). 전래동화라는 개념에는 민담 가운데 동화 같은 이야기들, 즉 소설류의 동화, 전설 류의 동화, 거짓말 동화, 신화, 우화 같은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전래동화에 포함되는 신화나 전설은 인간 삶의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환상적이고도 신비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즉 마귀와 천사, 신령, 요술쟁이, 말하는 짐승 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이나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이 등장하고 그들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며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면서 혼령들과 교제하는 세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동화의 상들은 모두 상징들이다. 동화는 상징으로 표현된다.

신화와 꿈이 상징 언어로 표현되는 것처럼 동화도 상징으로 묘사한다.

융(Jung)학파의 분석심리학자들도 전래동화에는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문제 및 그들 문제의 가능한 해결방안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본다. Franz(1980)에 의하면 전래동화는 상징으로 나타낸 집단무의식의 표현이다(홍성화, 1996, 재인용). 거기에는 개념적인 언어로는 표현 못할 그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 상징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들과 심리적인 내용 및 감정들이 농축되어 있다. 인간이 세계와 인간존재에 대해 경험하는 모든 것, 즉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천재지변 같은 자연현상, 탄생과 죽음, 초자연적인 현상 등과 인간존재의 내면성에 대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체험들은 상징으로 표현된다. 상징 중에는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것도 있지만 모든 인간의 같은 경험에 의한 공통적인 것도 있다. Jung이 말한 집단적 무의식은 바로 이를 가리킨다. Jung은 집단적 무의식으로서의 신화와 전래동화의 상징들은 인류 전체의 공통된 정신적 유산으로 계속 유지되고 전달됨으로써 현대인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이부영, 1983, 재인용). Lehr(1991)와 Howarth(1989)에 따르면, 전형적인 전래동화를 듣지 못할 때, 훌륭한 문화적 전승을 위한 연결고리의 상실은 물론, 기본적인 생존문제들, 예컨대 타인이나 그들의 소유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질투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 세상 밖으로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시켜야 하며, 신중한 선택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능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김미환, 1997, 재인용).

전래동화는 그들 상을 통해 상징으로 말한다. 전래동화의 주인공은 곧 인간 존재 및 행위의 상징이다. 그렇게 때문에 전래동화의 상징이해는 인간의 자기발견의 수단, 곧 인간 현존 재해명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들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와 문제해결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래동화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겁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준다.

2) 제주 전래 동화의 특성

제주 전래동화에는 신화·전설·민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화가 많이 있다. 신화는 문헌 자료가 아닌 구비자료로서 제주도의 특수한 직능자인 심방이 신성한 장소에서 행하는 의례에서 불리며 제주도민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길러 주었다. 제주도에서 신화는 심방들이 하는 이야기 곧 ‘심방말미’라 할 수 있고, 제주 선인들이 공동 참여에 의해서 갈고 다듬어진 것을 바탕으로, 제주인의 가치와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김선희, 2000).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를 살펴 보면, 생성·유래·원인·이유,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입는다, 허욕을 부리지 말라, 지성감천, 효도하라, 은혜를 베풀라, 보은, 남을 깔보지 말라, 남의 인권을 존중하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등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전래동화는 인간의 일반 심성과 관련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새롭게 변형시켜 전승시켜 오고 있다. 설문대 할망 전설에서처럼 대륙과의 연결을 희망하는 것이 섬이라는 지정학적 현상 속에서의 한계를 드러내는가 하면, 한라산을 만들고 오름을 만들었다는 섬의 형성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 아흔아홉골 전설처럼 100을 채우지 못하여 큰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주인이 탐라국이라는 독자정보보다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 전래동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인물, 사건 등을 살펴보면, 등장 인물은 대다수 지혜로우며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주류를 이룬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평범한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이나 불행에 좌절하지 않고, 이들과 싸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행복을 얻는다.

제주 전래동화의 사건은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성

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제주 전래동화가 설화의 분신으로, 아동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제주 전래동화의 제작자들이 성인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제주 전래동화는 전체적으로 162편이 여러 책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김선희, 2000). 본 연구에 사용된 제주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그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전래동화집인 ‘제주도이야기 1, 2’에는 이 세상과 소별왕, 한라산 신이 된 소극성, 무당의 조상이야기, 사만이, 자청비, 팔용당과 팔사당, 아흔아홉골, 산방산 이야기, 가릿뱅디, 절부암, 유반석과 무반석, 설섬과 뱀, 진나라 서벌과 정방폭포, 천제연과 효자, 천제연, 뱀을 죽여 없앤 서련, 의리있는 개 무덤, 소잡아 얻은 뿔자리, 장수무덤, 광정당과 이목사, 고종달이, 감목관 김씨, 배 큰 정서방, 인색한 죄수, 오찰방, 아기 장수의 죽음, 날개 돋은 아기의 죽음, 해적을 무찌른 장사 한씨, 장수가 못된 장사, 홍리고대감, 설문대 할망, 이좌수의 눈, 고성목과 산방덕, 구슬을 먹은 아이, 가문장아기, 남선비, 허웅아기, 용머리 바위, 아이업개, 여우잡은 이순풍,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산신령의 말(왕지네), 모관양반, 용감한 병둥이, 도깨비의 은방방이,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가 있다.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에는 삼성신화(삼성혈), 개무덤(성읍), 여우잡은 개, 바당에서 건진 돌하르방, 김통정 장군, 힘센 종 막산이, 돌음돌과 할망, 용왕을 욕한 강선장, 깃가 뛰어난 현유학 훈장, 고삭불 장사, 힘센 할망과 피 많은 하르방, 부래각, 도적떼를 살린 고행방, 의로운 당팓당장, 사라진 도깨비, 달아난 도깨비, 도깨비불을 쫓는 거육대, 도깨비를 무서워 하지 않는 소, 다시 살아난 아기, 참빛으로 변한 도깨비, 도깨비를 잘 모시면, 노루 때린 막대기가 있다.

내용별 분류로는 권선징악의 내용으로 초공과 유씨 부인, 사만이, 자청비, 가문장아기, 남선비 허웅아기 등이 있으며, 건국 또는 생성 신화의 내용으로 이 세상과 소별왕, 한라산 신이 된 소극성, 삼승할망, 삼성혈, 세화본향당, 광양당신, 영등할망, 할망당 등이 있다. 충성을 내용으로 한 것은

구슬할망 등이 있고 허욕을 금지시키는 내용으로는 팔용당과 팔사당, 백록담, 방선문과 선비 등이 있다.

효나 우애 등 가족간의 정을 그린 것으로는 수월봉과 녹고물, 천제연과 효자, 외돌괴와 범섬, 고성 홍효자, 신촌 김택효부, 열녀 김천덕, 시흥리 현씨 남매, 호랑이 잡은 열부,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상 차린 효부 등이 있고 인간존중을 내용으로 한 것에는 절부암, 구슬할망, 천제연, 어진 고행방,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왕지네, 까마귀 모르는 제사 등이 있다. 생명 존중에는 신도 충견 무덤, 감목과 김택, 오찰방, 명의 좌조의, 한순이 달순이 신선달, 저승할망 등이 있다.

Ⅲ.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 개발

이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지식을 기초로 하여 복지시설 거주 노인에게 적합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과 구성

1) 개발 과정

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의 무력감 완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려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개발될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 자료들을 수집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 분석을 통해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 구성되었다. 여기에 노인의 무력감에 관한 연구문헌의 내용을 검토·참고하여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항들을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셋째, 제안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 과정을 예시적으로 적용하는 실제 연구를 병행하였다.

넷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과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과 연구자의 관찰에 대한 질적 기술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2) 제주 전래동화의 재구성

복지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자료로서 제주 전래 동화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첫째는 제주 전래동화의 내용 참가 노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등장인물의 대화와 서술되어진 표준어를 제주 사투리로 바꾸었다. 참가 노인이 학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고 일상생활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참가노인들에게 의미있는 접촉이 되기 위해서 제주 사투리의 사용이 필요하였다.

둘째는 내용의 적합성 측면에서 제주 전래동화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 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요인에 중점을 두어 회기별 주제에 맞춰 제주 전래동화를 선정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알게 된 시설 거주 노인에게 있어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신체적·심리적·통제력 상실, 소외, 가족과의 격리, 지지체계의 부족을 제주 전래동화의 제시에 있어 공경, 타인 존중, 협동을 주제로 삼아 참가 노인으로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제주 전래동화는 ‘힘센 할망과 피 많은 하르방’, ‘제주도 이야기 1, 2’ 등에 나와 있는 53종이다. 이를 무력감의 속성과 관련 지어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경’ 와 관련된 제주 전래 동화는 천제연과 효자, 고성목과 산방덕, 호랑이 잡은 열부, 홍리 고대각, 장원 급제한 어부의 아들, 남편 따라 죽은 아내, 오백장군, 의리 있는 개의 무덤, 농사신이 된 자청비, 도깨비의 은방망이 등이다. ‘타인 존중’ 과 관련된 제주 전래동화 자료로는 고성목과 산방덕, 천제연, 어진 고행방, 호랑이 잡은 열부, 고성목과 산방덕, 천지연, 고성목과 산방덕, 의리 깊은 바메기, 은혜깊은 노루, 앓은뱅이와 황금, 사만년을 산 사만이 등이다. ‘협동’ 을 주제로 한 제주 전래동화는 유반석과 무반석, 봉사와 앓은뱅이가 있다.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공경’의 주제로 한 “의리있는 개의 무덤”을 “의로운 개의 무덤”으로, “농사신이 된 자청비”를 “옥황상제의 며느리가 된 자청비”로, “도깨비의 은방망이”를 “도깨비의 은방망이”로 제목을 달리하여 선정하였다. ‘타인 존중’의 주제로 “사만년을 산 사만이”로 선정하였고 ‘타인 존중’과 ‘협동’의 주제로 “얹은뱅이와 황금”을 선정하였다.

3)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구성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구성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다음의 4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첫째는 참가노인들 간의 친밀감 형성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참가자들 서로 간에 상대를 알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남에게 이야기하기에 비교적 덜 꺼려할 만한 주제들로부터 접근하여, 후자에는 남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나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친밀감의 형성과 함께 이야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둘째는 사고 시점의 이동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먼 과거를 최근의 일보다 더 잘 기억하며 뚜렷한 인상을 갖고 간직하고 있다. 반면 현재와 가까운 일의 경우 감정적으로 언짢은 기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인상에 남는 기억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노인이 된 현재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거나 미래의 자신의 여생을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의 노인에게 과거의 회상에 비해 덜 즐거운 일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먼 과거의 회상에서 출발하여 후기로 갈수록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전망 쪽으로 생각을 이동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는 과거 회상에서부터 당면 문제로의 사고 전환이다. 노인들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재적인 것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응용적인 것에, 정보나 지식보다는 기술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 의미 있는 자료가

사용되거나 학습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을 때 연령과 관련된 결함이 줄고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돈하는 일은 결국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며, 따라서 과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상의 결과 어떤 것이 현재 자신에게 소중한고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조하였다.

넷째는 적절한 제주 전래동화 내용의 선택이다.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특정한 “제주 전래동화”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참가자들의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가 담긴 내용으로 선정하여 전래동화를 듣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과거 참가자들이 경험과 동일시하고 현재 문제를 토론하여 노인들은 자기들의 감정과 관심사를 서로 그리고 진행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회기	제 목	목 표	세 부 내 용	준비물 및 관련자료
1	동화의 세계로	· 프로그램의 목표, 진행과정, 진행방법의 이해 ·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이해.	·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일정 안내 · 집단의 목적 및 집단 규칙 합의	음악 tape, 서약서, work sheet
2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사람들	· 자신의 기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에 대하여 좀더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함.	· 즐거웠던 혹은 화려했던 기억, · 슬펐던 혹은 힘들었던 기억 · 부끄러운 기억, · 잊고 싶지 않은 기억 · 좋은 사람, ·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	음악 tape, 『의로운 개의 무덤』 동화 자료, work sheet
3	나의 인생곡선	·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짐.	· 내 인생의 전환기 · 나의 꿈과 좌절 ·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음악 tape, 『옥황상제 머느리가 된 자청비』 동화 자료, work sheet
4	자식들에 게 하고 싶은 말	· 자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봄	· 자식을 키우면서 느낀 점/ · 자식으로부터 접했던 기억 · 내가 자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남기고 싶은 것	음악 tape, 『도깨비의 은방망이』 동화 자료, work sheet
5	노인으로 잘 사는 것이란?	· 현재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좋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정돈해 봄	· 나의 하루 일과/지난 한주 일정 · 노인인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 · 잘 못 살고 있다고 느낄 때 · 분받고 싶은 노인/ 추한 노인	음악 tape, 『사만년을 산 사만이』 동화 자료, work sheet
6	나에게 중요한 것, 사람들에 게 바라는 것	· 앞으로 남은 생이 활기차고 보람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봄.	·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인가? · 나에게 중요한 것, 하고 싶은 일	음악 tape, 『앞은뱅이와 황금』 동화자료
7	나의 살아온 이야기	· 프로그램을 평가해 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지 알고자 함.	· 그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 대한 소감, 평가하기 · 동료 간 마무리 인사 하기	음악 tape, 촛불

2. 프로그램 진행의 실제

“바람, 돌, 여자의 이야기” 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먼저, 요양원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구성 등을 담은 프로그램 개요를 제공한 후, 프로그램 진행을 허락받아 진행하였다. 개발자가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참가자 모집에 있어 노인들과 직접 대면하였고 참여 유도하였다. 실시기간은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시행되었으며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매회 60분간 총 7회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회기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다과회를 겸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활동은 제주 전래동화 감상과 자유토론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관련 동화자료와 Work sheet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회기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진행하였다.

제 1회기 : 동화의 세계로

1회기에서는 진행자는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유의해야 할 점을 주지시키며, 참가자들 서로가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별칭 짓기를 하자고 할 때 참가자들의 반응은 이미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짓기를 거부하였다. 미리 준비된 ‘자기 소개’ Work sheet가 있어서 참가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별칭짓기 활동을 생략하였다. 자기소개와 동시에 프로그램 참여 결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서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손도장을 찍도록 하자 별스런 걸 다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미있어 하였다. 진행자는 앞으로의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집단 규칙을 함께 논의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 진행 방식 등에 대하여 참가자들과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 2회기 :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사람들

2회 모임에서는 각자 큰 부담 없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가는 단계이다. 제주 전래동화 ‘의로운 개의 무덤’을 듣고 소감은 말하고 동화와 동일한 경험을 나누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서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직접 ‘자서전’ Work sheet에 맞춰 자서전을 구두로 작성하였다.

제 3회기 : 나의 인생 곡선

3회 모임에서는 기본적으로 2회 모임의 연속으로, 참가노인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을 보다 더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앞의 모임과 마찬가지로 제주 전래동화를 듣고 소감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말하도록 하였다. ‘나의 인생’ Work sheet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회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과거 성장기와 장년기 동안 살아온 삶을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각자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데 익숙해지고, 또한 모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알아 나가도록 진행하였다.

제 4회기 :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4회 모임에서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현 세대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노인자신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노인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다. 활동내용에는 ‘도깨비의 은방망이’ 동화를 듣고 동화 속 등장인물인 어머니가 되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나의 자녀들’ Work sheet를 작성하여 소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 구두로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

제 5회기 : 노인으로 잘 사는 것이란?

5회 모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배경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현재의 생활과 생각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여, 참가노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또는 살고 싶은 ‘좋은 삶’에 대하여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화 ‘사만년을 산 사만이’를 듣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사만이’의 마음을 유추해보고 미완성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을 통해 노인으로써의 자신의 생활을 정돈해 보도록 하였다. ‘나의 일’ Work sheet를 작성하여 현재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제 6회기 : 나에게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6회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남은 생이 활기차고 보람있는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들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였다. 제주 전래 동화 ‘앞은뱅이와 황금’의 일부 이야기를 듣고 생략된 중간 부분을 유추해 보며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같이 일상 생활 속의 황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제 7회기 : 나의 살아온 이야기

7회 모임에서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것을 회상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다른 참가 노인들에 대해 생긴 친밀감을 확인하고,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나누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에서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그 동안 말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다음에 다시 참가한다면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 등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IV.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1. 연구 대상

제주도 북제주군에 소재한 복지시설에 거주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검사를 실시하여 무력감이 낮은 노인, 입소한지 6개월 이상 된 노인, 집단 활동의 참여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연구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참여를 수락한 노인 20명을 상담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10명씩 분류하여 배정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프로그램은 실시자의 수시적인 관찰, 기록, 대화 등의 비형식적인 평가결과를 활용하며, 동시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사후 상담·비교집단 설계를 실시하였다. 즉, 질문지를 통한 사전-사후 검사와 관찰 및 주관적 총괄평가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전에 사전 검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집단 (n=10)	O ₁	X	O ₂
비교집단 (n=10)	O ₃		O ₄

O₁ , O₃ : 사전 검사(무력감 검사)

O₂ , O₄ : 사후 검사(무력감 검사)

X :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 실시

3. 측정도구와 자료처리

노인의 무력감을 측정을 위해 Miller(1983)가 개발하고 박정문(2001)이 수정한 무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t검증을 적용한 SPSS/PC⁺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검사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까지 1-4점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정문이 측정한 검사도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5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검사지는 정서적 반응에 관한 5문항, 건강활동의 참여에 관한 2문항, 일상생활 활동의 참여에 관한 4문항, 치료에 관여해야 되는 책임감에 대한 학습 참여에 관한 4 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표 III-2>와 같이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 -2> 무력감 척도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 항 번 호	Cronbach's α
정서적 무력감	5	2, 3, 4, 5, 6	.80
건강활동 무력감	2	7, 8	.62
일상생활 무력감	4	9, 10, 11, 1	.77
학습참여 무력감	4	12, 13, 14, 15	.77

질적 자료의 처리는 본 연구자의 참여 관찰의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1) 평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가분석 대상은 총 프로그램에 5회 이상 참석한 상담집단 10명, 비교 집단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참석자들의 연령은 71세부터 96세로, 70대가 9명, 80대가 7명, 90대가 4명이었다. 교육 수준은 무학이 대부분이었으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참석자가 6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읽고 쓰는 데 부담을 느꼈다.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한 년수가 10년 이상이 4명, 5년 이상이 4명, 4년이 되는 참가자가 2명, 3년이 3명과 6개월이 갓 지난 참가자도 3명이었다. 자녀가 생존해 있는 참가자는 15명이었고 건강상태는 요양원 입소노인들로 참가자 모두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병이나 피로감 등으로 인해 자리에 눕는 일이 많으신 참가자도 1명이었다.

평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IV-3>

평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변 인	구 분	빈 도(명)	백 분 율(%)
성별	남	.	.
	여	20	100
연령	70대	9	45
	80대	7	35
	90대	4	20
복지시설에 거주한 년수	10년 이상	4	20
	5년 이상	4	20
	3년 이상	5	25
	1년 이상	4	20
	1년 이하	3	15
교육수준	무학	16	80
	초등학교 졸업	3	15
	전문학교 졸업	1	5
자녀 유무	유	15	75
	무	5	25
건강상태	건강한 편	.	.
	보통	2	20
	건강하지 못한 편	8	80

2) 양적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무력감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 검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무력감 사전 검사 비교

구분	M	SD	t
상담집단(n=10)	2.54	0.79	0.62
비교집단(n=10)	2.52	0.78	

<표 IV-4>의 무력감 사전 검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비교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담집단의 무력감 평균 점수는 2.54점, 비교집단은 2.52점으로 상담집단이 다소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서로 무력감이 동질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설 검증

가설 1 :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무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무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구분	M	SD	t
상담집단(n=10)	1.63	0.70	3.59**
비교집단(n=10)	2.24	0.88	

** p<.01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M=1.63)과 비교집단(M=2.24)간의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9, p<.01$).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무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졌다.

(3) 무력감 하위요인별 사후 검사 차이 검증

가설 2 :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무력감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정서적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 건강 활동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 일상생활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 학습참여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무력감의 하위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정서적 무력감 차이 검증

가설 2-1 : 정서적 무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정서적 무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정서적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구분	M	SD	t
상담집단(n=10)	1.45	0.55	-8.21**
비교집단(n=10)	2.68	0.76	

** p<.01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M=1.45)과 비교집단(M=2.68)간의 정서적 무력감 사후 검사 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21$, $p<.01$).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정서적 무력감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완화되었다.

이는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반응은 자신의 행동 결과에서 비롯됨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② 건강 활동 무력감 차이 검증

가설 2-2 : 건강 활동 무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건강 활동 무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건강활동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구분	M	SD	t
상담집단(n=10)	1.85	0.88	-0.48
비교집단(n=10)	2.00	1.08	

<표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M=1.85)과 비교집단(M=2.00)간의 건강 활동 사후 검사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형성된 습관의 변화에는 보다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은 단기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는 검증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③ 일상생활 무력감 차이 검증

가설 2-3 : 일상생활 무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일상생활 무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일상생활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구분	M	SD	t
상담집단(n=10)	1.58	0.68	-4.01**
비교집단(n=10)	2.28	0.87	

** p<.01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M=1.58)과 비교집단(M=2.28)간의 일상생활 무력감의 사후검사 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01, p<.01$).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일상생활 무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완화되었다.

이는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능력 상실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현재 자신의 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④ 학습참여 무력감 차이 검증

가설 2-4 : 학습참여 무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학습참여 무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학습참여 무력감의 사후 검사 비교

구분	M	SD	t
상담집단(n=10)	1.64	0.69	-2.54*
비교집단(n=10)	2.02	0.80	

* $p<.05$

<표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M=1.64)과 비교집단(M=2.02)간의 학습참여 무력감의 사후검사 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4, p<.05$).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학습참여 무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완화되었다.

이는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 변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0>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무력감 사후 검사 비교

구분		n	M	SD	t
정서적 무력감	상담집단	10	1.45	0.55	-8.21**
	비교집단	10	2.68	0.76	
건강활동 무력감	상담집단	10	1.85	0.88	-0.48
	비교집단	10	2.00	1.08	
일상생활 무력감	상담집단	10	1.58	0.68	-4.01**
	비교집단	10	2.28	0.87	
학습참여 무력감	상담집단	10	1.64	0.69	-2.54*
	비교집단	10	2.02	0.80	
전체	상담집단	10	1.63	0.69	-4.14**
	비교집단	10	2.25	0.85	

* p<.05 , ** p<.01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력감 사후 검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집단 노인들의 무력감 전체 점수(M=1.63)가 비교집단 노인들의 전체 무력감 점수(M=2.25)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력감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상담집단 노인들의 무력감의 하위영역 중에서 정서적 무력감(t=-8.21, p<.01), 일상생활 무력감(t=-4.01, p<.01), 학습참여 무력감(t=-2.5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프로

그럼은 상담집단에 참여한 노인의 무력감 하위요인에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질적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자료들은 매 회기의 활동 시간과 마지막 회기에 이루어진 다과 시간 등을 통하여 관찰 형식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 전래동화의 성과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회고하는 과정과 자신의 현재 생활 습관과 노년기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삶에서 후회되는 일, 행복한 일 등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 결혼 생활, 현재의 생활을 점검하게 되었다.

노인(A): 그저 일만 했지, 일을 안 하면 먹질 못 하던 시절이었어.

노인(B): 엄마가 있잖아, 줄줄이 아이를 낳는다고, 낳기만 하면 이제 형제가 다 키우는 거야. 아이를 등에 다 얹어주고 밭이나 바다에 나가잖아. 아이는 등에 업은 채 공기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다보면 아이가 등에서 오줌을 싸. 그래도 그냥 업고 노는 거야. 동네 애들이 다 그랬어.

노인(A): 다들 그랬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어. 보리 탈 곡하고 남은 것들 있잖아, 물에 타서 먹으면 입에 맞질 않아. 맛도 없고 거칠거칠해서 아이들은 먹으

려고 하지도 않지. 먹을 게 그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이놈의 자식 하면서 야단 쳐 가며 먹었지. 엄마는 먹이려고 하고 아기는 받아먹지 않으려고 하고.

노인(C): 병 중에서도 당뇨가 가장 못쓸 병이야. 병에 걸리면 몸보신한다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해 먹잖아. 근데 이놈의 당뇨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얼마나 못 생긴 병이야. 내가 젊어서는 이렇지 않았다고. 아들을 묻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쓰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당수치가 300을 넘어. 그 때 병을 알았어.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야. 예전엔 이렇게 말도 못 했어. 마음이 아파서 아들 이야기 하기가 힘들었지.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금방 만날거야 하고.

노인(D): 내가 박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들, 딸들도 많이씩 낳고 하더니. 난 딸 둘만 낳았지. 하나는 먼저 갔어. 어렸을 때도 그렇게 몸이 약해 걱정이 되더니, 가더라고. 남은 딸이라도 잘 살면 걱정 없겠는데. 집 한 칸 없어 남의 집 살이 하고.... 뭐 하나 보태 줄 것 없고.... 일은 열심히 했지, 한 건 일 뿐이야. 그런데도 뭐 하나 남은 게 없어. 자식한테 뭐 물려줄 게 없어.

노인(F): 나이 들면 아픈 데가 많아. 없던 병도 생긴다고. 또 왜 그렇게 잠은 안 오는지. 밤에 잠이 안 오면 죽겠어. 부스럭 거린다고 같은 방 할머니는 성을 내지, 밝아오려면 한참은 남았지.

노인(E): 관절염이 심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래도 해야 할 일 있으면 하려고 하지. 그런데 뭣 하는 거라 하거나 그것도 못 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 서러워.

노인(C): 여기 온지 한 3,4년 되어 가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 왔을 때 할머니들이 육지년, 육지년하면서 얼마나 뒤에서 흥봤다고. 어떨 땐 내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는 것 같애. 그럴 땐 화가 나서 나도 그래줬지. 내가 육지년이면 너는 제주년이라고,. 속으로만 하고 말았지만 말야. 그래도 어떻게 해, 여기 살려고 들어왔는데 사랑사랑 거리면서 할머니, 할머니 하고 먼저 안겼지. 지금은 안 그래. 잘 해 주잖아. 내가 아파서 방에 누워 있으면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들여다 봐. 식당에 가지 못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죽을 가져다 주고 챙겨주지.

노인(B):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 모두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 살지. 하루 3끼 식사 챙겨줘, 간호사가 때 맞춰 약 먹여 줘.

노인(E): 다 좋은데 글 못 읽는다고 뭐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 뭣 하다가 글도 못 배웠냐고. 살려고 하니까, 일하느라고 글 못 배웠는데 배우기 싫어 그랬나?

노인(D): 글 못 배운 게 제일 못난 일이야. 우리 때는 여자가 글을 배운다고 하면 못 쓰게 된다고, 건방져 저서 안된다고 집에서 말렸어. 밤에 야학이라고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학교까지 와서 날 끌고 가.

참가자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후회가 되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비교하며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A):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처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모두가 비슷한 입장이고 서로 잘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노인(B): 그동안 같이 살아왔어도 서로에게 잘 못해 줬었는데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야겠어.

노인(D):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고 매일 밤 눈물이 나서 힘들었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모두 아쉽고 내가 너무 못나 보였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여러 할머니들 앞에 이런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위로해 주고 안아주니까 너무 고마워. 처음에는 글도 모르고 자신 없었는데 옛날에 알고 있던 이야기고 해서 재미있고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편해 졌어

노인(G): 난 잘 걸지도 못하는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한 게 제일 좋아.

노인(C): 선생님(본 연구자)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림 그려다 할머니들한테 보여주고 따로 시간 내서 이야기하고 노력 많이 했어. 글도 모르는 할머니들 모아서 프로그램이라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고맙고.

노인(H): 다른 할머니들이 궁금해서 죽을려고 그래.

마지막 회기의 다과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들만의 비밀 모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은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진행자가 유도하는 대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녀의 죽음과 같은 민감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주제에 있어서도 수용하고 거부감 없이 활동에 참여하여 반응을 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이 참가 노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취나 성공’의 평가로부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생애를 살아왔다는 평가로 변화하였고 이는 무엇보다도 모임에서 타인으로부터 얻은 지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참가 노인의 참여 소감에서도 동료, 친구로부터 받은 정서적 공감, 지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이 참가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지지와 공감을 얻도록 하여 노인에게 있어 무력감 속성 중 타인에게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 손자 등의 가족과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타인관계를 상실함으로써 경험하는 ‘밀려남’, 지나온 시간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와 살아온 인생이 의미 없고 허망하다고 느낄 때의 ‘덧없음’의 체험을 재평가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노인은 노화과정에 의한 심리적, 생리적 변화로 인해 어느 연령층에 비해 서도 무력감에 취약하며 복지시설 거주 노인은 무력감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역할 상실이 가장 큰 집단이다. 이러한 무력감에 계속 노출될 때 노인은 우울, 절망감의 자기 파괴적인 순환과정을 경험하여 죽음을 재촉하게 된다.

본 연구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완화를 위한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둘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셋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복지시설 거주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년기라는 생애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며, 또한 시설 거주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또 무력감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화와 무력감의 내용과 속성을 살펴보았다. 제주 전래동화의 특성을 살펴 제주 전래동화가 무력감 완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적용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 자료들을 수집하여 종합, 분석을 통해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

그럼 내용이 계획,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일정을 소개, 자기 소개, 서약서 작성 등의 시간을 가졌다. 2회기는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동화와 동일한 경험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회기는 ‘나의 인생 곡선’이라는 제목으로 2회기의 심화 활동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회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동화 속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자녀에게 이야기 해보고 난 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구두로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 5회는 ‘노인으로 잘 사는 것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동화를 듣고 미완성 문장을 완성해 보는 활동, 동화 속 주인공의 마음을 유추하는 활동을 통해 노인으로써의 자신의 삶을 정돈해보도록 하였다. 6회는 ‘나에게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전래 동화의 일부 이야기를 듣고 생략된 중간 부분을 유추하고 등장 인물과 같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황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7회기는 ‘나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과를 함께 나누며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 북제주군에 소재한 s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검사를 실시하여 무력감이 낮은 노인, 입소한지 6개월 이상된 노인, 집단 활동의 참여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연구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참여를 수락한 노인 20명을 임의 표집하여 각각 10명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정하였다.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의 실시는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시행되었으며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매회 60분간 총 7회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회기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다과회를 겸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으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력감 측정도구에 통해 사전-사후 검사한 결과를 통계 분석한 양적 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질적 자료 분석 평가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무력감 검사도구는 Miller(1983)가 개발하고 박정문(2001)이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까지 1-4점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정문이 측정한 검사도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5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M=1.63)과 비교집단(M=2.24)의 무력감 전체 사후 검사 차이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9$, $p<.01$).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활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 노인들의 무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완화되었다.

둘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사전-사후 무력감 하위 요인에 대한 사후검사의 비교에서 3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무력감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M=1.45)과 비교집단(M=2.68)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21$, $p<.01$).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정서적 무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졌다.

건강 활동 무력감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는 상담집단(M=1.85)이 비교집단(M=2.00)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에 의한 상담집단의 건강 활동 무력감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일상생활 무력감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는 상담집단(M=1.58)과 비교집단(M=2.28)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01$, $p<.01$).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일상생활 무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졌다.

학습참여 무력감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M=1.64)과 비교집단(M=2.02)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4, p<.05$).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학습참여 무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졌다.

셋째,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하여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비교하며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집단 활동과 토의 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표출되었고, 다른 참가자들의 공감과 위로를 통하여 정리되고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참가자들은 소감 나누기와 집단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2. 결론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둘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하위 요인인 정서적 반응에 관한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셋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 참여에 관한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넷째, 제주 전래동화 활용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하위 요인인 치료에 관여해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학습 참여 무력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

다섯째, 노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세대로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인생을 정리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

들이지 못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노인들의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노인의 이러한 특성을 살피 긍정적 자기 이미지, 생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개인차가 크고 태도가 다양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진행 방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노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노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는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섯째,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완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성과로는 문헌 고찰과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본 경험에 비추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 전래동화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곱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원들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진행자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대화를 보다 체계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화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세우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무력감을 완화할 수 있는 제주 전래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현장에 적용될 때 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을 사전에 예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 대상자가 s 요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일반 노인, 병원 입원 노인 등의 집단을 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해 보는 후속 연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보다 큰 표본을 활용하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의 요구조사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발자의 의도에 의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복지 시설 거주 노인의 무력감 인지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력감을 완화할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민호(1999). **이야기를 통한 노인상담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대학원
- 김경은(1995). **노인의 무력감의 현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명선(2000). **손자녀와 노인의 상호작용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미애(1994). **시설수용노인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미환(1997). **전래동화의 인간학적 진술과 교육학적 의미고찰**, **교육철학**. 17.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 김선희(2000).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승혜(1992). **가정노인과 시설노인의 인식기능 및 우울증상에 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영선(1999).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영희(1998).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생활화를 위한 검토**,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정순(1995).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보건관리 대책**, **대한보건협회지 제 22권 제 2호**
- 김조자, 임종락, 박지원(1992). **노인의 무력감 완화를 위한 심리재활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4)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현태(1984). **불우노인의 발생 원인과 대책**, 아산, 춘계호,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36

- 박상훈(2000).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고독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선희(1997). 노인의 생활조건에 따른 고독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정문(2001).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사미자(1995). 노년의 심리,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 서병숙(1993).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 손춘익 역(1997). 힘센 할망과 피 많은 하르방, 서울 :우리교육
- 신미화(1996).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신종태(2000).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따른 사호복지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 신재진(1985). 노인의 근관절 운동이 자가간호활동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기순(1994). 양로시설 거주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부영(1998).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인수(1995).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서울:일진사
- 이인수, 장세철(1999). 양로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접촉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17(1)
- 이혜원(1988). 노인복지론, 서울:유풍출판사
- 장덕순(1970). 한국 소설문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숙아(1997). 사회적 지지가 시설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승은(1997). 노인의 무력감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승은, 최영희(1996). 노인의 무력감에 관한 연구 : 문화기술지적 접근, **한국노년학**, 16(2).
- 정미실(1996). 아동, 부모, 조부모특성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진영아(1994). 노인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최영희, 김경은(1995).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무력감 현상 연구, **간호학회지**, 26(1)
- 최운식, 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2**,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논총**, 4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 홍정실(1995). **재가 및 시설노인의 생활조건과 고독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Atchley, R.(1981). Common misconceptions about aging. *Health Values : Achieving High Level Wellness*, 5
- Butler, R. N., Lewis, M. I., and Sunderland. T. S.(1991). *Aging and Mental health*, 4th ed. New York : Macmilan Publishing Company.
- Deci, E.(1976).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 Erlen, J.A., Frost, B.(1991). Nurses' perceptions of powerless in influencing Ethical Decision. *Western Journal of Nursing*, (3)
- Kim, M. J., Mcfarland, G. K., Mclane, A. M. (1989). *Pocket Guide*

- to Nursing Diagnosis*(3rd Ed), St. Louis : Mosby
- Lancaster, J.(1981). Maximizing psychological adaptation in an aging population. *Topics in Clinical Nursing*, 3(31), April.
- Reed, P. G.(1986). Developmental resources and depression on the elderly. *Nursing reaserch*, 35.
- Schaie, K. W. & Parr, J.(1981). *The Modern American College : Responding to the New Realities of Diverse Students and a Changing Soc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 Shaw, R. (1986). *Powerlessness in a nrsing home population*. A. Mclane, ed. *Classification of Nursing Diagnosis*

<Abstract>

**A study on the traditional fairy tale program development
geared toward alleviating elderly people's sense of
helplessness and an analysis of its effects**

Bang Kyoung Ja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al by Professor Hur,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traditional fairy tale program geared toward alleviating elderly people's sense of helplessness who were housed in welfare facilities and to determine its effectivenes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s:

1. How could traditional fairy tales in Jeju be reconstructed?
2. In which way should a program about traditional fairy tales in Jeju be developed?
3. What effect does a program about traditional fairy tales in Jeju have on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s sense of helplessness?

After relevant domestic literature and material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 program was prepared by using traditional fairy tales in Jeju. The first session was planned to explain the object and schedule of the program and to let participants introduce themselves and write a letter of pledge. The second session was titled 'What and who remains in my memory.' Participants would look back on their lives by sharing the same experience as the given fairy tales describe. The third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session was titled 'My life curve,' and provided the enrichment activity of what's unfolded in the second session by having them reflect on their lives more deeply. The fourth session was titled 'What do you want to say to your children, and offered a chance for participants to talk to their children in the place of mothers depicted by fairy tales and to write an oral letter to them. The fifth session was titled 'What should it be like to lead a good life as an elderly person,' in which they could arrange their lives by completing unfinished sentences after listening to a fairy tale and guessing how its characters would feel. Under the title 'What's important to me and what I expect from people.' the sixth session had them infer about the other parts of a traditional fairy tale after listening to some part of it, and let them think of what's gold in their lives with reference to what its characters regard as gold. The seventh session titled 'My life and my story' let them share how they feel about the program, taking some refreshm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 elderly people who were selected from the dwellers at S nursing home in Bukjeju-gun, Jeju-do. After their sense of helplessness was tested, 20 people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who felt less lethargic, resided there for six or more months, were able to be involved in group activities and communicate and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with 10 each.

The program was implemented by utilizing traditional fairy tales in Jeju on Saturdays and Sundays from December 4 through 26. The experimental group took part in the program in seven 60-minute sessions between 11 a.m. and 2 p.m., and the last session was conducted between 1:30 and 3 p.m., in which some refreshments were provid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were employed by carrying out pretest and posttest and observing the participants.

The instrument used to assess their sense of helplessness was Park Jeong-mun(2001)'s revised version of Miller(1983)'s Helplessness Inventory, which was put to use with no modific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raditional fairy tale program was effective in easing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s sense of helplessness.

Second, the traditional fairy tale program served to relieve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s sense of emotional helplessness, one of helplessness subfactors.

Third, the traditional fairy tale program contributed to alleviating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s sense of daily helplessness, one of helplessness

subfactors.

Fourth, the traditional fairy tale program had an effect on weakening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s sense of academic helplessness, one of helplessness subfactors.

Fifth, the elderly people,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sake of their families, considered their families more important than themselves, and they didn't even think of how they should lead their lives. Elderly people had to wrap up their lives and were scarcely receptive to new things, and given such characteristics, programs geared toward the elderly should be unfolded in a sequential, phase-in way, and they should be designed to help them to build a better image of themselves and look at their lives positively. It's attempted in this study to develop the program flexibly in light of the physical and sociopsychological features of elderly people among whom broad individual variances existed. The effort by this study is expected to lay the groundwork for developing a wide variety of specialized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ir needs and to give them a wider choice.

Sixth, the program was prepared to eas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s sense of helplessness by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and that program was actually applied. All the attempts paved the way for boosting the applicability of fairy tales in Jeju to the elderly.

Seventh, elderly people had a strong tendency to talk about themselves only without listening to others. In order to direct their conversation in the right direction and make a program work, conversation rules should be prepared, and every participant should be exhorted to abide them.

Eighth, as the fairy tale program geared toward alleviating a sense of helplessness turned out to be effective, its application will contribute to preventing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from being helpless and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The attempt by this study to eas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s sense of helplessness by taking advantage of fairy tales in Jeju is expected to stir up the development of more specialized programs for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부 록

<부록 1> 제주 전래 동화 프로그램	59
<부록 2> 프로그램 시 사용되었던 Work sheet	66
<부록 3> 조사 설문지	69
<부록 4> 제주 전래동화 자료.....	72

<부록1> 제주 전래 동화 프로그램

제 1회기: 동화의 세계로

목표	본 제주 전래 동화 활용 프로그램을 이해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유발한다.
준비물	음악 tape, 서약서, 이름표, 사인펜, 자기소개 Work sheet
활 동 내 용	
도입	· 분위기 조성 활동 - 호흡을 고르게 하고 머리를 앞, 뒤로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고 난 다음 좌, 우로 움직이도록 한다. 먼저 리더가 시범을 보이고 구성원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전개	1) 프로그램 소개하기 - 책 한 권과 밥 한 그릇을 상자 속에 넣고, 다시 다른 상자 속에 넣고 또 다시 상자에 넣어서 포장한 뒤에 제시하고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상자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 보고 마지막에는 상자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상자를 흔들거나 만져서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맞춰보게 한다. - 책과 밥이 들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 제주 전래동화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임을 알린다. -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설명한다. - 프로그램 일정을 알린다. 2) 자기 소개하기 - work sheet에 맞춰 모든 구성원이 자기 소개를 한다(진행자 시범) - 진행자가 준비해 둔 이름표를 나눠 준다. - 이름표 뒷면에 자신이 알아차릴 수 있는 표시를 한다. - 자신이 표시한 것을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설명한다. 3) 서약서 작성하기 -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함께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준비해 둔 복사물의 내용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리더가 정한 것 이외에도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정리	· 참여자 간의 느낌 나누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나누기 · 다음 회기 안내하기
유의사항	· 자연스럽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 이름표에 자기 인식 표시(색깔, 마크)를 남의 도움없이 하도록 한다. · 집단의 이야기를 집단 밖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한다.

제 2회기 :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사람들

목표	자신의 기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에 대하여 좀더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한다.
준비물	민요 tape, 『의로운 개의 무덤』 동화 , Work sheet
활 동 내 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단한 신체 활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원으로 둘러 앉은 상태에서 서로가 팔, 등, 어깨, 목, 머리를 두드려 준다. · 인사나누기 <li style="padding-left: 20px;">: 지난 한 주일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한다.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화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자료 표지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일지 추측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 『의로운 개의 무덤』 전체 이야기를 듣는다. 2) 첫 느낌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본다. 3) 전체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개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4) 동화와 동일한 경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아오는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자서전 쓰기(자서전 Work sh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아오면서 중요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자서전을 쓴다.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할 수 있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회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새롭게 배운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생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제 3회기 : 나의 인생 곡선

목표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진다.
준비물	음악 tape, 에그쉐이크, 『옥황상제의 며느리가 된 자청비』 동화 자료, Work sheet
활 동 내 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둥그렇게 앉아 에그쉐이크를 옆사람에게 건네주다가 음악이 멈추면 에그쉐이크를 잡은 사람이 인사를 한다. ·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체 활동 : 음악에 맞추어 스트레칭과 신체 두두리기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생'하면 생각나는 것으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한 후 느낌을 이야기한다. 2)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간단하게 안내한다. 3) 동화 제시 『옥황상제의 며느리가 된 자청비』 일부 이야기를 듣는다. 4) 첫 느낌을 나누고 전체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생략된 이야기를 완성한다면? 5) 느낌 말하기 내가 자청비였다면? 6) '나의 인생' Work sheet 작성 및 발표 Work sheet에 맞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고 이야기한다.
정리	· 이번 회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새롭게 배운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유의사항	'나의 인생' Work sheet 작성을 성의있게 하도록 유도한다.

제 4회기 :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목표	자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본다.
준비물	녹음 tape, 『도채비의 은방망이』 동화 자료, Work sheet
활 동 내 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한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한다. · 분위기 고취를 위한 신체 활동 : 두 손을 여러 번 문질러 따뜻하게 한 후 눈, 귀, 뺨, 머리 등에 대어 본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의 신체에 데워진 손을 대어 본다.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화 제시 『도채비의 은방망이』 전체 이야기를 듣는다. 2) 첫 느낌 나누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본다. 3) 전체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생각 말하기 큰 아들의 행동과 작은 아들의 행동에서 더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마지막 장면을 바꿔 본다면? 4) 등장인물인 어머니가 되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이야기 하기 자식을 키우면서 느낀 점/자식으로부터 섭섭했던 기억 내가 자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5) 편지 쓰기(물려주고 싶은 것 Work sheet)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것 녹음기에 녹음한다.
정리	· 이번 회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새롭게 배운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유의사항	참여자의 저항이 너무 강할 때는 강요하지 않는다.

제 5회기 : 노인으로 잘 사는 것이란?

목표	현재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좋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정돈해 본다.
준비물	음악 tape, 『사만년을 산 사만이』 동화 자료, Work sheet
활 동 내 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동그렇게 앉아 에그셰이크를 옆사람에게 건네주다가 음악이 멈추면 에그셰이크를 잡은 사람이 인사를 한다. ·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체 활동 : 음악에 맞추어 스트레칭과 신체 두두리기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화 제시 『사만년을 산 사만이』 제목을 듣고 어떤 이야기인지 추측하여 이야기 한다. 전체 이야기를 듣는다. 2) 첫 느낌 나누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본다. 3) 전체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만이 오랫동안 살기를 원한 이유는? 사만이 사만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사만이처럼 오랫동안 살게 된다면 _____ 할텐데’ 문장 완성하기. 4) 자신의 삶 살펴 보기(‘나의 일’ Work sheet) 나의 하루 일과/지난 한주 일정 노인인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 잘 못 살고 있다고 느낄 때 본받고 싶은 노인/ 추한 노인
정리	· 이번 회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새롭게 배운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유의사항	

제 6회기 : 내게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목표	앞으로 남은 생이 활기차고 보람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준비물	녹음 tape, 『앗은뱅이와 황금』 동화자료
활 동 내 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한주일 동안 지낸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한다. · 분위기 고취를 위한 신체 활동 : “어르신”이 들어간 지시에 따르기 예를 들어 “손 드세요”라는 지시문은 따르지 않고 “어르신, 손 드세요”라는 지시문에 손을 든다.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화 제시 『앗은뱅이와 황금』 일부 이야기를 듣는다. 2) 첫 느낌 나누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본다. 3) 생략된 중간 부분을 이어보기 황금을 발견한 앓은뱅이가 왜 장사꾼에게 매를 맞고 있었을까? 앗은뱅이처럼 황금을 발견한다면? 4) 생략된 중간 부분 듣기 앗은뱅이는 어리석은 사람? 앗은뱅이에게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5) 일상생활에서 황금 찾기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 하고 싶은 일
정리	· 이번 회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새롭게 배운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유의사항	

제 7회기 : 나의 살아온 이야기

목표	프로그램을 평가해 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자 한다.
준비물	‘고별의 노래’ tape, 촛불
활 동 내 용	
<p>1) 본 활동 목표를 간단히 설명하고, 지난 회기 동안 이루어진 활동을 상기시킨다. : 각 회기에 쓰였던 동화자료를 제시하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 각 회기별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며 느낌을 나눈다.</p> <p>2) 준비한 촛불을 켜다. : 초에 불을 밝히면 모임에 함께 한 참가자들에게 고마움, 느낌, 생각을 전한다.</p> <p>2) 프로그램 평가 내용 평가 : 제주 전래동화의 내용이 적절했는가? : 활동 내용이 거부감없이 쉽게 활동할 수 있었는가? 참가자들 간의 관계 변화 : 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다른 참가자에 대한 생각, 느낌은? 참가자 스스로 자각하는 자신의 변화 : 모임에 참가하기 전과 참가한 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은?</p> <p>3) 소감문 쓰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낌, 생각 등을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p> <p>4) 마무리 : 모두 촛불 주위에 둘러 앉아 손을 맞잡고 ‘고별의 노래’를 감상한다. : 다과회를 하면서 참여자 간, 참가자와 진행자 간 인사를 나눈다.</p>	

제 2회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사람들

<2> 자서전 양식

유아기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그때 살고 있었던 집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 초부모 이야기	
집 근처에 자주 들렀던 상점이야기	
좋아하던 놀이나 놀이친구 이야기	
처음으로 마음 설레게 했던 이성 이야기	
연애시절 이야기	
혼인식 때 이야기	
부모가 되었을 때 이야기	

제 3회 나의 인생 곡선

<3> 나의 인생

나이대별로 중요한 사건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인생 중에서 힘들었던 시기 기록하기	
행복했던 사건들 기록하기	
미래생애도표	· 앞으로의 삶 계획

제 4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4> 물려주고 싶은 것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	· 재산 · 유품 · 가르침
------------------	-----------------------

제 5회 노인으로 잘 사는 것이란?

<5> 나의 일

내가 해 왔던 일	
일을 해 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	
앞으로 해 보고 싶은 일	
남을 위해 내가 했던 일	
봉사하면서 느꼈던 일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인분들의 치료와 부양이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노인서비스 담당선생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노인의 무력감에 대해 탐구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거주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로만 사용되며 전산처리 됨으로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성실한 응답이 중요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앞으로 행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방경자 드림

☞ 다음의 문항은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노인분들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노인분들에 대해 담당 선생님께서 보고 생각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담당 노인 성함 _____

1. 담당노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건강하다
 - 2) 분명 건강문제는 있지만 누워 있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 3) 아파서 대부분 누워서 지낸다.

2. 어르신은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 1) 있다.(3번으로) 2)없다(4번으로)

3. (있다면) 어르신은 자녀 또는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1) 1주일에 1번 정도 2) 한달에 1번 정도
 - 3) 1년에 3~4번 정도 4) 1년에 1번 정도 5) 전혀 만나지 않음

4. 어르신의 나이는 어떠십니까? 만 ()세

5. 시설에 입소하신 해는 언제입니까? _____

6. 어르신의 성별은 어떠십니까?
 - 1) 남성 2) 여성

☞ 다음의 문항은 이곳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
분이나 태도 행동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담당 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v표 하세요.

행 동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자주 그 렇 다	항상 그 렇 다
1. 문제에 대해 체념하는 행동을 보인다.				
2. 삶을 부정적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3. 이유 없이 화를 낸다				
4.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를 꺼려한다.				
5. 유순하고 순종적이다.				
6. 개인위생이 청결하지 못하다.				
7. 건강을 돌보는데 관심이 없다.				
8. 음식먹는 것을 거부한다.				
9.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10. 일상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1.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12. 자신의 질병에 대해 묻지 않는다.				
13.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해도 잘 알지 못한다.				
14. 치료와 처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15. 알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				

<부록 4> 제주 전래동화 자료

의로운 개의 무덤

제주도 북제주군 귀덕리 부근에는 의로운 개의 무덤이 이신디(있는데), 거기에는 영현(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전 온덴 햄수다(전해 내려온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사는 어떤 하르방(노인)이 개 한 마리를 길러신디(길렀는데), 이 개는 하르방 말을 어떻게나 잘 따르는지 늘 하르방을 따라댕기멍 시키는 것도 잘 해 내고 해수다(따라 다니면서 심부름까지도 능히 해낸 정도였다).

어느 해 하르방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 부러수다(병들어 눕게 되었다). 개는 하르방이 누워 있는 방 앞에 다리를 꾸부렁 앉안 어디 가젠을 안 해수다(떠날 줄을 모랐다). 하르방이 음식을 먹지 않으니 개도 따란 먹질 않고, 하르방이 밤잠을 자지 않으니 개도 자지 않아연 그 방 앞에서 킁킁거리멍 주인만 걱정헤마씨(개는 주인이 음식을 먹지 않자 개도 먹이를 먹지 않았다. 개는 밤잠도 자지 않고 그 방 앞에서 킁킁거리면서 주인의 병을 걱정하였다).

경 허단 하르방은 결국 죽어부러수다(그러던 차에 주인은 결국 죽고 말았다). 그 개도 하르방이 죽어부난 허삭한 몸을 헨 밖으로 나가 부러덴마씨(그 개는 주인의 죽음을 알고는 그 여윈 몸으로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사람들은 개도 하르방이 죽어불몬 집 나감구나 하고 생각헤덴마씨(사람들은 개도 주인이 세상을 뜨자 집을 떠나는 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제 집에선 하르방 문을 준비로 사람들이 많이 와수다(집안에서는 노인의 장례 준비로 사람들이 들끓었다). 경 현디 어디 문을 땅을 좇지 못헤 말들을 하영해수다(그런데 노인을 문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걱정들이었다). 장지 보는 사람도 영 좇지 못해수다(뫓자리를 보는 사람을 데리고 이곳저곳 쏘다녀 봐도 적당한 곳이 나오질 않았다). 경 헨 문을 날도 못 정허영 상주는 걱정만 하영 해수다(그래서 장례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상주는 걱정만 하고 있었다).

경허단 이내예(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하르방이 죽어부난 집 나가부러던 그 개가 하영 줄영 돌아와수다(노인이 죽자마자 집을 뛰쳐나갔던 그 개가 아주 여위어서 돌아왔다). 개는 어디 갔단 와신지사 몸에 흙이영 뫓영 하영 문영 말이 아이어수다(그의 몸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돌아온 개는 상주 옷을 물영 막 잡아 뫓기난 상주는 이상헤다 생각허멍도 개가 허는 양 따라가수다(돌아온 개는 상주의 상복을 물고 잡아 당기는 것이었다. 상주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개가 끄는 대로 따라갔다). 어디라도 개가 가는양 가 봐사 주 허고 생각헤마시(어디까지도 개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경 상주를 물영 뫓기멍 가던 개가 어디 와지난 옷을 놓고 상주를 보멍 뫓랜 곧젠 허는 것 같아수다(그렇게 상주를 끌고 가던 개가 한곳에 이르더니 상주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듯했다). 상주가 영 잘 보난 땅에 무덤만큼씩 선이 그어져 이신거 아니마시(상주는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무덤 크기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건 개개 주둥이로 그어논 건디 개 주둥이는 흙이영 상쳐영 말이 아이어수다(그것은 바로 개가 주둥이로 그어논

선이었다. 개의 주둥이는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상주는 거기다 아방 묻어사 되겠다고 생각해수다(상주는 그곳에 아버지를 장사지냈다). 개가 주인 생각허영 해 논 거난 좋을 거랜들 고릅디다(개가 자기가 모시던 주인을 위해 마련한 밋자리니까 괜찮을 거라고들 생각하였다).

경 하르방 묻어신디 얼마 못간 개도 죽어부러수다(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서 얼마 안 지나 그 개도 죽었다). 경헌디 그 개가 죽젠허난 하르방 무덤 찾아가서 죽영 있어수다. 사람들은 하르방 무덤 옆에 개를 묻어주고마시(그런데 그 개는 죽기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는 그 노인의 무덤 곁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그 노인 옆에 만들어 주었다).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은 완전 잘 되신디, 사람들은 개가 좋은 자리 좇안 하르방을 묻어주난 경 된거랜들 고릅니다(그 후 그 집안은 상당히 번창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의로운 개가 명당을 찾아냈기 때문일 거라고 전하고 있다).

옥황상제 며느리가 된 자청비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대감 벼슬을 지낸 김진국이란 사람신디 아주 예쁜 딸이 이서수다(김진국이란 사람에게 아주 예쁜 딸이 있었다).

딸이 자란 열다섯이 되난 어멍, 아방은 곱고 요망진 딸을 자청비라고 불러수다(어느덧 딸이 자라서 열다섯이 되었다. 부모는 너무나 얼굴이 예쁘고 지혜가 뛰어난 그녀를 자청비라 불렀다). 자청비는 집에서 옷도 짜고 아방신디 글도 배우멍 커수다(자청비는 집에서 길쌈을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 글도 부지런히 배웠다).

경 허단 자청비가 빨래허젠 동네 바깸디 가신디 옥황상제 아들 문 도령이 글배우젠 땅 위에 왔단 목 말란 자청비신디 물 호끔만 달랜 허여수다(어느 날 자청비가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옥황상제 아들 문 도령이 글공부를 하러 땅위에 내려 왔다가, 목이 말라서 자청비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다).

“미안헌디 호쓸 물 얻영 먹어지카 마시(죄송합니다만 물 한 그릇만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문 도령은 얼굴 고운 처녀를 봐지난 가슴이 막 뛰멍 물 달랜 해수다. 자청비는 우물에서 물 길언 나뭇잎을 띄완 줘수다. 문 도령은 용심난 얼굴로 물 받안 푸후 불멍 물 마십디다(문도령은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에 가슴 두근거리며 먹을 물을 청하였다. 자청비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물 위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내밀었다. 문도령은 불만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물그릇을 받아 푸푸 불멍서 물을 마셨다).

“와리지 마란 먹으랜 나뭇잎 띄와수다. 목 마르덴 호록 드리시당 걸리문 약도 어서마시(천천히 마십사고 나뭇잎을 띄웠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급히 마시다가 체하는 날엔 약도 소용없습니다).”

영 곤는 자청비의 말을 들영보난 문도령은 처녀의 마음씨를 알 수 있어수다(이렇게 설명하는 자청비의 말을 듣고서야 문 도령은 처녀의 마음씨를 알 수 있었다).

“선비는 어딜 감신디 경 재기재기 다님수강(선비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온테 그렇게 바빠 다니십니까?)”

“예, 난 하늘 나라에서 온 문도령인디 알동네 김선생신디 글 배우젠 감수다(아랫마을 김선생 댁에 글공부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 경 허든 우리 아시도 고치 글공부허랜 보내크다(그러면 제 동생도 같이 글공부를 보내려 합니다).”

자청비는 집에 들어간 글공부할 준비허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영 문도령을 따라 나서수다(자청비는 집에 들어가서 글공부할 준비를 채리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문도령과 함께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서당에서 고치 글을 배우멍 삼년을 공부해신디 하늘나라 문도령네 집에서 편지가 와수다(두사람은 서당에서 같이 글을 배우멍서 삼년을 공부하는데 하늘 나라 문도령네 집에서 편지가 왔다). 편지를 보난 문도령 얼굴이 시꺼멍 해지멍 이상헌 자청비가 무사넨 물어수다(편지를 받아든 문도령의 얼굴빛이 이상하게 변하자 자청비가 그 연유를 물었다).

“집에서 장가가랜 험수다(집에서 장가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경허른 나도 공부 그만 허고 집에 가크다(그러면 저도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당을 떠나 집으로 가기 시작해수다. 자청비는 자기를 여자로 못 알아보는 문도령이 미원 뒀랜 곧고 싶어수다(그들은 서당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다. 자청비는 자기를 여자로 알아보지 못한 문도령이 밋기까지 했다).

두 사람이 자청비네 마을 우물에 오난 자청비는 고치 목욕허겐 고라수다. 문도령도 경허겐 허고마시. 문도령이 옷 벗언 들어가난 자청비는 나뭇잎을 물에 띄워수다. 경해도 문도령이 모르난 자청비는 나뭇잎에 글을 썩 다시 띄워수다(그들이 자청비네 마을 우물에 이르렀을 때 자청비는 함께 목욕이나 하자고 문도령에게 권하였다. 문도령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문도령이 목욕을 할 때 자청비는 나뭇잎을 따서 문도령이 목욕하는 물에 뿌렸다. 그러나 문도령은 그 나뭇잎엔 상관하지 않고 목욕만 하자 자청비는 나뭇잎에 글을 써서 다시 띄웠다).

“경도 모르크가, 난 삼년 전에 이 우물에서 물 길언 준 처녀우다(눈치없는 도령이여, 나는 삼년 전에 바로 이 우물에서 도령님의 물그릇에 나뭇잎을 띄운 처녀입니다).”

문도령은 그 글을 봐지난 목욕허단 말안 재기재기 옷 입언 자청비신디 가수다(문도령은 그 글을 보고는 목욕하다말고 부랴부랴 물에서 나와서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도채비의 은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어명이 두 아들을 데령 살고 이서수다(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큰아들이 썩 장가간 집이영 받을 큰아들신디 몬 다 쥐수다. 큰아들이 잘 살믄 작은 아들도 장개 보내고 자기도 거기간 살믄 되켜 허고 생각헬마시(큰아들이 자라자 장가를 보내면서 재산을 큰아들에게 거의 다 물려주었다. 큰아들이 여유 있게 살면 동생도 장가를 보내 주고 자기도 그 아들에게 가서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경 해신디 큰아들은 어멍이나 아시를 모른체 해수다. 며느리도 시어명이영 아시신디 막 구박하고마시(그러나 큰아들은 어머니나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 더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나 시동생을 매우 구박하였다).

홀 수 어시 어멍은 어린 작은아들호고 고치 동냥허멍 살아수다(할 수 없이 어머니는 어린 둘째 아들과 함께 동냥을 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

아방 제삿날이 돌아와수다. 어멍은(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다. 어머니는)

“오늘이 아방 제삿날이 우린 가진 거 어시난 형신디 간 방 오라. 어멍 제사 준비 헬신디 강 방 와(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 제사를 차릴 수 없으니 형님께 집에나 가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멍 말대로 아시는 형신디 가수다(어머니 말대로 동생은 형의 집을 찾아갔다).

“뭣 허래 와시냐(무엇 하러 왔나)?”

“형님,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 아니까, 경헌디 우린 제사 못 지내난...(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 아녜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차릴 형편이 못 돼서...)”

“산 사람도 못 먹엿신디 죽은 사람까지 어멍 챙겨시니, 니가 배고프던 허는 말은 문따 거짓말이여(산 사람도 배고픈 판에 죽은 사람까지 생각하게 되었느냐? 네가 배고프던 말은 거짓말이로구나.”

경 허멍 아시를 내쫓아수다. 그 때 아지망이 정지서 맛좋은 것을 맨들멍 이시난 아시는 정지 앞에 선 가질 알아수다(그러면서 동생을 내쫓았다. 그 때 형수가 부엌에서 맛있는 것을만들고 있었는데 동생은 부엌 앞에서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무사 거기 성 이시니(왜 거기 그렇게 서 있느냐)?”

형이 성을 내멍 물어수다(형이 신경질을 부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막 배고파 헬수다(어머니가 배고파하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 말라, 어머니 줄 건 따로 있져(어머님께는 따로 드릴 것이 있다).”

아지망이 주는 거 받아어정 아시는 나와수다(형수가 내미는 것을 받아들고 동생은 형님께 집을 나왔다).

집에 오당 형이 뭐 보냄신지 궁금허영 풀어 봐신디 그건 밥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개똥이여수다(집에 돌아오다가 형이 보낸 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풀어 보았다. 그것은 밥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개똥이었다).

아시는 용심 나서 그것을 던져둔 울멍 집에 가수다(동생은 화가 나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울멍 돌아오는 작은아들을 보고 어명이

“무사 경 울엄시냐(왜 그리 울면서 오느냐)?”

하멍 물어수다(하며 물었다).

작은 아들이 몬다 얘기허난(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아이고, 멍충이 같은 것아, 무사 그걸 버려시냐. 형이 어멍 생각허영 보내신디 먹을 것 보다 더 좋은 걸 지도 모르는데(이 미련한 놈아, 왜 그것을 버렸느냐, 형님이 제 어미를 생각해서 보낸 것이니 혹시 쌀보다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영 형만 생각하는 어명이 어이어성 아시는 나무허러 산에 가수다(이렇게 형을 두둔하는 어머니를 보고는 동생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나 해다가 팔려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다).

하도 배고판 걷는 것도 버천 낭 아래 뉘 있당 좀 드리 부러수다(하도 배가 고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다).

혼춤 자신디 새가 뒤편 떠드는 소리가 난 깨신디

“아이고, 영 불쌍한 아이 보라게. 배가 오죽 고파시든 좀 들어시카(아이고, 이 불쌍한 아이 좀 봐. 배가 얼마나 고프면 쓰러져서 잠이 들었을까?)”

경 허멍 아시신디 뭘 떨어뜨려신디 밤 세 개여수다(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툭 떨어뜨렸는데 그것은 밤 세톨이었다).

밤을 주원 집에 가전 해신디 해가 저물언 컴컴해져 오난 숲속에 있는 기와집에 들어간 좀 들어부러수다(밤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해가 저물어 어두워져 오고 있었다. 숲속에 버려진 기와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들어가 잠들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신디 안꺼리를 보난 도채비들이 방망이로 천방을 두드리멍 떠들고 이서수다(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는데 안채를 들여다 보니까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마루를 두드리면서 떠들고 있었다).

“떡 나와라 딱딱, 밥 나와라 딱딱”

영 말 고르멍 두드리난 맛있는 음식이 막 나와 도채비들이 먹기 시작해수다(이렇게 말하자 정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고 그들은 모여 앉아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다).

아시도 갑자기 배가 고파전 주순 밤을 꺼낸 제일 작은 걸로 입에 넣고 ‘딱’하고 물어수다(동생도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주운 밤을 꺼내 제일 작은 것으로 입에 물고 ‘딱’하고 깨물었다). 도채비들은

“이거 우리 집 쓰러지는 소리 아니강?”

하면서 놀래수다(놀라는 것이었다).

밤 한 개로 배가 부르지 않으난 아시는 어멍 주젠 놔뒀던 밤을 꺼낸 입에 넣멍 ‘딱’하고 깨물어수다(밤 한 톨로 배가 고파서, 이번에는 어머니께 드리려던 밤을 꺼내 입에 넣고 ‘딱’하고 깨물었다).

“이전 집 무너지젠 허는 모양이라(와, 이번에는 집이 무너지려는가 보다).”

도채비들은 밤 먹단 말앙 막 도망쳐부러수다(도깨비들은 밤을 먹다 말고 우당탕 하며 도망쳐 버렸다).

아시는 술찌기 도채비가 있던 데 가서 방망이를 가지고 돌아가수다. 집에 온 아시는 어

명신디 방망이를 주순 얘기를 몬 다 해수다(동생은 살짝 도깨비가 있던 곳으로 가서 방망이를 가지고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어머니께 방망이를 얻은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셔. 이 방망이만 이시몬 뉘시든 다 생깁니다(어머니, 이제 걱정하실 일 없어요. 이 방망이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어요).”

가난하던 홀어명네는 부자가 되었주마시(가난하던 홀어머니는 부자가 되었다).

이 소문은 형신디까지 들어가수다. 아시가 부자가 된게 암맹해도 이상허영 형은 아시신디 와서 막 야단해수다(이 소문은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게 이상해서 동생을 찾아가 화를 내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홀 수 어시 아시는 몬 다 고라줘수다(할 수 없이 동생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 주었다).

형은 아시신디 들은대로 밤 세 개 고정 산속 기와집에 들어간 도깨비를 기다려수다(형은 동생에게 들은대로 밤 세 톨을 가지고 산속 기와집에 들어가서 도깨비를 기다렸다). 아시 말대로 도깨비가 들어오난 형도 밤을 입에 물언 ‘딱’소리가 나게 해수다(동생 말대로 도깨비가 들어오자 형은 밤을 하나 꺼내어 입에 넣어‘딱’하고 깨물었다).

“저번에 우리 방망이 고쳐간 놈이 또 왔구나(지난 번에 우리 방망이를 도둑질해 간 놈이 다시 왔구나).”

형은 도깨비신디 죽도록 매만 맞아수다(형은 도깨비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았다).

사만년을 산 사만이

아주 오랜 옛날이우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신디 날이 저물언 들에서 쯔을 자게 되수다(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난 사냥꾼의 총을 주랜 허여수다(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그 총을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말하였다).

“무사 마시(왜 그러십니까)?”

“나도 당신고튼 사냥꾼신디 총 맞안 죽어수다. 아무도 몰란 누게가 물어주는 사람도 없고 영 귀신되영 돌아다념수다. 날 훑아낸 쯔 물어줍서(저도 당신처럼 사냥꾼에게 총을 맞아 죽은 몸입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편안히 쉴 곳이 없어 돌아다니니, 당신이 나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영 고르명 자기가 이신 곳을 고르쳐 줘수다(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

쯔에서 깨어난 사냥꾼은 꿈에서 고른냥 여인이 고르쳐 준대를 간 봐신디 정말로 여자의 팡이 이서수다(잠에서 깨어난 사냥꾼은 꿈에서 가르쳐 준대로 찾아가 보았다. 과연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뼈들이 있었다). 사냥꾼은 그 팡들을 잘 모단 별난디 물어줘수다(사냥꾼은 그 뼈들을 잘 모아 햇볕나는 곳에 물어주었다). 그날 밤에 또시 그 여인이 나타나수다(그날 밤에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다).

“고맙수다. 덕분에 이젠 편안하게 쉬어지크다. 은혜를 갚겐 허난 나 말 잘 들읍서. 신 세 개허고 밥 세 그릇을 고정 동네서 제일 높은데 강 이십서(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니 제 말대로 하십시오. 짚신 세 켤레와 밥 세 그릇을 준비하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가십시오).”

날이 밝으난 사냥꾼은 꿈에서 본 여인이 고른대로 준비허고 동네에서 제일 높은 동산에 가수다(날이 밝자 사냥꾼은 꿈에서 본 여인이 일러준대로 준비하고 동네에서 제일 높은 동산에 갔다). 어떤 세 사람이 왕 배고프난 밥 달랜 허고 밥 먹어지난 또시 먼 길 가젠 허난 신 달랜 허영 고정 가부러수다(어떤 세 사람이 와서는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달라고 하며 밥을 얻어먹고는 먼 길을 가려니 신을 달라고 하며 신을 가지고 가 버렸다).

경 현 다음에 사냥꾼은 사만년을 세상에서 살아신디 경행 그 사람을 ‘사만이’랜 해수다(그 후 사냥꾼은 사만년 동안 살았고 그를 ‘사만이’라고 불렀다).

얇은뺨이와 황금

옛날에 얇은뺨이와 눈먼 소경이 서로 도우며 살고 이서수다(옛날에 얇은뺨이와 눈먼 소경이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었다). 눈먼 소경은 얇은뺨이를 등에 정 다니며 동냥바치질을 해신디 얇은뺨이가 고른냥 돌아다녀수다(눈먼 소경은 얇은뺨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동냥질을 했는데 얇은뺨이가 시키는 대로 걸어다녔다).

하루는 동냥하러 나가신디 얇은뺨이가 길에 떨어져 있는 큰 황금덩어리를 봐져수다(하루는 동냥하러 나갔다가 얇은뺨이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큰 황금덩어리를 발견하였다).

“아아고, 저기 금 떨어진 있져(아, 저기 금덩어리가 있다).”

영 큰소리 허젠 허단 얇은뺨이는 고만해수다(이렇게 큰소리를 치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생각행 보난 금덩어리가 하난디 못 끄는 사람은 섭섭할 것 같고, 소경은 못 보지만 자기만 고지른 도리가 아니고 경허덴 자기를 정 다니는 소경신디 쥐불른 자기가 섭섭할 것 같안마시(생각해 보니 금덩어리는 하나인데 못 가지는 사람은 섭섭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경은 못 보지만 자기만 가지는 것은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자기를 업고 다니는 소경에게 주면 자기가 섭섭할 것 같아서였다).

경행 얇은뺨이는 좀좀해부러수다(그래서 얇은뺨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을 시장을 돌아다니당 한 가난한 장사꾼을 만나수다(두 사람은 마을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한 가난한 장사꾼을 만났다). 얇은뺨이는 그 장사꾼에게 술찌기 고라수다(얇은뺨이는 그 장사꾼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쪽에 가 보른 길에 금덩어리가 떨어진 이실 겨우다(요 건너편에 가면 금덩어리가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장사꾼은 얇은뺨이가 호는 말을 끝이곧대로 들진 않았지만 혼번 속는 셈치고 거기에 가수다(장사꾼은 얇은뺨이의 말을 믿진 않았지만 한번 속는 셈치고 가 보았다).

경헌디 얇은뺨이가 말한 길에는 황금이 아니라 뺨이 이서수다. 거기에는 암만 봐도 금은 어서수다(그런데 얇은뺨이가 말한 길에는 황금이 아니라 큰 구렁이만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는 아무리 봐도 금덩어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놈인 나신디 거짓말 해져(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장사꾼은 용심 난 고정 있던 큰 칼로 그 구렁이를 두동강 내부러수다(장사꾼은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큰 칼로 그 구렁이를 두동가 내고 돌아왔다). 얇은뺨이를 좇안 마구 두들겨 패수다(얇은뺨이를 찾아서 마구 두들겨 때렸다).

“이상호다, 분명 금이 이서신디(이상하다. 틀림없이 보았는데...)”

얇은뺨이는 매 맞게 된 사정을 소경에게 고라줘수다(얇은뺨이는 매를 맞아야 했던 사정을 소경에게 말해 주었다).

“자네가 꾀지 안행 장사꾼신디 주젠 헛거 춤 잘 했져. 나신디 주젠 해도 난 말아실겨여(장사꾼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네. 내게 주었어도 나는 받지 않았을걸세).”

경행 얼마어성 두 사람은 다시 황금덩어리가 있었던 곳을 지나가게 되어수다(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 두 사람은 다시 황금덩어리가 있었던 곳을 지나게 되었다). 경헌디 전에

이었던 황금덩어리가 이번에는 두 개로 노나정 이서수다(그런데 전에 있었던 황금덩어리가 이번에는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아, 경했구나. 그 장사꾼이 용심난 구렁이를 졸랐던 해신디 경헌게 이제난 두 덩어리 황금이 됐구나게(아, 그렇군. 그 사람이 핫김에 그 구렁이를 두 동강이로 잘라 버렸다고 하였는데, 그게 이제는 두 덩어리 황금이 되었구나).”

두 사람은 영 헌게 몬따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허영 그 두 덩어리 황금을 노나 가져수다(두 사람은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 덩어리 금을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